



연말연시를 맞아 YTN타워 정면 외벽에 아름다운 조명이 설치되어 밝게 빛나고 있다.



“생존과 이익을 바탕으로 한 도약”

배석규 YTN 사장은 19층 보도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회사의 생존과 이익을 바탕으로 한 도약을 강조했다.

배 사장은 우리의 방송환경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신설 등으로 인해 무한 경쟁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기와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면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사장은 이어 조직의 안정화와 콘텐츠 업그레이드, 공격적인 경영을 화두로 제시했다. <신년사 2면>

YTN, 3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YTN이 국내 언론학자들이 뽑은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한국언론학회 회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YTN은 정보의 균형성 등을 가늠하는 공정성 부문에서 1위로 꼽혔다.

YTN은 또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부문에서 근소한 차이로 KBS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신문·방송·온라인 등 24개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09 미디어 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장신년사(요약)

‘미래의 YTN’을 디자인 합시다

YTN 가족 여러분!

경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YTN 방송을 시작한지 15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 뜻 깊은 한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취임 후 저는 여러 차례 회사의 생존과 이익을 경영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도 생존과 이익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도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 허가되고 새로운 보도채널이 추가된다면 우리의 방송 환경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무한 경쟁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노조 집행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도 생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부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적으로도 YTN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저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취임사에서 언급한 회사 경영 방침을 한 단계 더 높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안정화입니다.

조직이 안정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YTN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모든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사의 기강이 세워져야 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기강확립을 전제로 노사가 대립과 반목의 시각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원칙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노사화합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로 구성될 노조 집행부도 이 점을 유념해주길 기대합니다.

둘째는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추구해야 합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G20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YTN으로서는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생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뉴스 제작 시스템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작과 송출 장비의 디지털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는 ‘공격적인 경영’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출구전략이 본격화 되면서 더블딥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고 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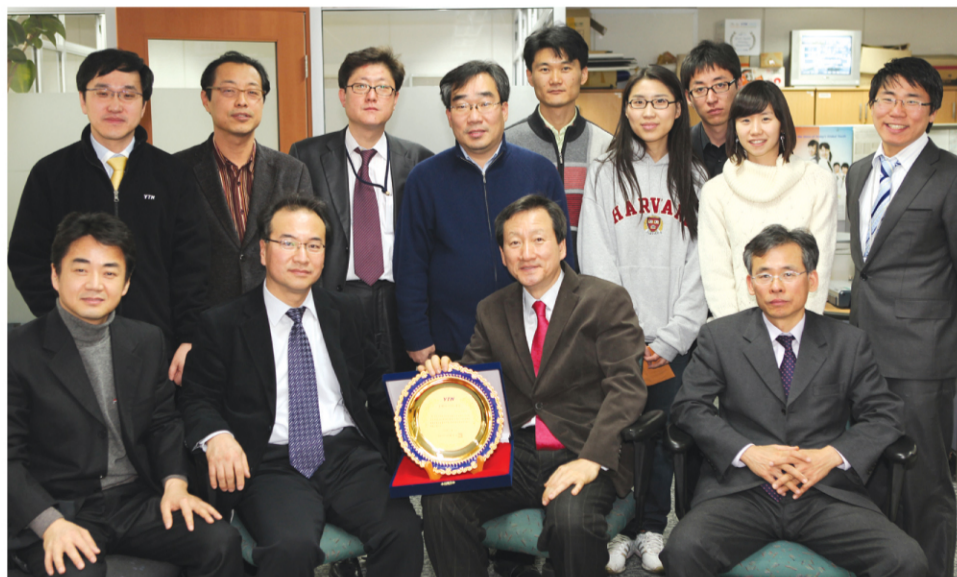
사장인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마케팅국이나 미디어사업국 등 영업부서는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영업 방법으로 매출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자기 혁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가족 여러분!! 올해는 경인년 백호의 해입니다. 백호는 도약과 기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YTN에게는 지금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선발 뉴스매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한국에서 가장 우량한 언론기업으로 우뚝 서는 ‘미래의 YTN’을 디자인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 15년을 위해, 더 나아가 미래 30년을 위해 다시 첫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기호지세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1. 4 사장



미디어사업국, YTN 대상 수상

류희림 미디어사업국장은 “YTN 대상의 영광을 안겨준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 생각한다.”며 “새해에도 더욱 심기일전해서 회사의 새로운 사업과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류 국장은 “미디어사업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사내 관련부서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게시판

연말 포상 <올해의 YTN 대상> 미디어사업국 <특별상> 보도국 부산지국, 기술국 인프라팀 <올해의 최우수 프로그램상> 김신영 차장대우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 ‘스페셜 ‘녹색의 꿈’ <모범 사원상> 이영미 심의실, 최유석 기획총괄팀, 최경순 차장대우 디지털기획팀, 조남규 인사팀, 이광범 총무팀, 서영진 차장대우 총무팀, 김윤순 타워운영팀, 이병우 마케팅2팀, 김미연 편성운영부, 이승윤 정치부, 오인석 차장 경제부, 이정미 사회1부, 박종권 대전지국, 이승현 문화과학부, 이규일 차장대우 해외방송팀, 황혜경 편집1부, 김경아 차장대우 편집2부, 김선영 앵커팀, 김진호 그래픽팀, 김윤석 차장대우 영상취재부, 이성모 차장대우 영상취재2부, 정혜진 영상편집부, 이기래 차장대우 송출기술부, 김한수 차장대우 제작기술부, 최병수 차장대우 제작기술부, 김민태 차장대우 중계부, 김진두 차장대우 사이언스TV <표창장> 오애숙 사회2부

4/4분기 포상 <특종상> ● 특종상 은상 : 손재호 부산지국장, 전재영 차장대우, 박종혁 부산지국 ‘부산 사격장 화재 보도’, 심정숙 국제부 ‘남태평양 사모아 강진 보도’, 원종호 차장대우 영상취재부 ‘서울 도심 멧돼지 출현 - 경찰 실탄 발사 보도’ ● 특종상 동상 : 윤경민 차장대우 정치부 ‘사이판서 총격 한국인 6명 포함 12명 사상 보도’, 박기현사회1부 ‘HSBC에 타임플루 천여 명분 처방 논란 보도’, 강진원 사회1부, 시철우 영상취재부 ‘북한군 레이더 작동 - 군 비상태세 보도’ <YTN 우수프로그램상> 박철원 차장, 박조은 보도제작부, 이성모 차장대우 영상취재2부 : ‘현장 인터뷰 24’, 이문세 차장, 김태운 차장대우 영상취재부 : ‘하천을 말한다’ <SO공로상> 박소영 HBC 호남방송, 양상현 KCTV 제주방송 <사이언스TV 우수프로그램상> ● 자체제작부문 - 이재혁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 ‘과학의 향기’ 제작 및 방송, ● 외주제작부문 - 메이프로덕션 <공로상> 장훈희 마케팅2팀, 이종하 마케팅3팀, 박상준 사업팀, 김응준 편성운영부, 김동철 차장대우, 송세혁 강릉지국, 김동민 차장대우 스포츠부, 홍명화 그래픽팀, 이광래 영상취재2부장, 김자영 차장대우 제작기술부, 김진호 차장대우, 배경호 차장대우, 이상경 차장대우 중계부

프로그램 탐방 - <현장인터뷰 24>제작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사냥꾼들

“아~ 요즘 저희 ○○○씨가 너무 바빠서 출연은 안 될 것 같네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 쪽으로 갈게요”
 “여길 어떻게 오세요, 요즘 매일 지방 공연인데 -_-:”
 “아, 그러니까 거기로 간다고요~!!^^;
 (\ 이건 섭외의 '美'. 짜증나도 웃어줘야 함)

인터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핑계는 거의 '딱무가내' 수준일 때가 많지만 흔히들 '시간'이란 변명의 카드를 내밉니다. 사실 '귀찮다', '무섭다', '(심지어) 출연료도 없는데' 같은 얘기가 진실에 더 가깝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정중한 연기로 '너~~무 바빠서 시간은 요만큼도 낼 수 없다'며 호들갑을 떨겁니다.

“거기,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말하자면 우리는, '바빠서 못 간다'는 스타들의 답변에 만세를 부르는 그런 종족입니다. '와우! 대체 얼마나 바쁘기에~!'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한다는 거네?!' 부터, '뭐가 됐든 <그 무엇>이 우리가 가는 동안 지속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도 납니다. 어떻게든(스타 본인이라기보다는 '매니저'를) 달래고 얼러서 와이어리스(무선마이크)를 채워야만 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장인터뷰 24>는 절대 무기를 가지고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공이 결정되는 단계는 겨우 철사로 뼈대 하나를 만들어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살을 붙이고 제대로 형체를 만들어 색을 칠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먼저, 취재. 카메라 몇 대가 사용되느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말하면 2대고, 방송용 멘트는 4대입니다. 인터뷰이는 ENG 카메라, 진행자는 6mm카메라로 고정해 (쟁이들 말로)풀로 돌립니다. 여기에 야외 촬영일 경우 6mm 카메라를 이용한 지미집 촬영이 추가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6mm카메라 한 대를 더 투입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영상취재부 이성모 선배와 프리랜서 PD인 유동아씨가 촬영을 담당하는데, 오디오맨 고정일 씨와 취재차량을 운전하는 박상용 씨 도움이 없다면 단언컨대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24분을 채울 다양한 영상은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이쯤에서 프로그램 절반 이상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채 11기로 YTN에 발을 들였고, 공순이 생활은 올해로 만 3년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찌어찌하다 딜커덕, 이런 <고품격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저 이야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소설이든 드라마든, 클래식이든 가요든, 스타벅스 안의 깃털처럼 가벼운 수다까지 이야기가 있으면 저는 머무릅니다. 나이는 어리고 경력은 짧고 그렇다고 밀어붙일 미모 역시...없습니다. 성격도 굳이 말하자면 어디서 튀기 보다는 좀 물어가자는 식입니다. 거기다 포장이요? 포장은 더더군다나 진~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을 꼽자면, 제게는 이른바 '반전'이 있다는 점입니다. 진지한 것 같은데 웃기고, 여린 듯 단단하고, 무심한 듯해도 안으로는 생각이 꽤 복잡한...그런 반전. '기자들은 다 비슷하지'라는 추측에 대한 반전, '이렇게 말하면 안 물어보겠지'라는 생각에 대한 반전. 방송은 평범해서는 안 되고 뭔가 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전. 결론적으로 어딘가 밋밋하다는 선배들의 고언에 대해서는...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 이진 진행자 자체가 '반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의 취재는 초보 진행자와 미녀 작가 이상미씨가 함께 만든 어설픈 듯 먹히는 구성 속에서, 그러저럭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집입니다. 24분 리포트 10개도 넘는 분량에 편집기가 다운된 게 오늘로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본이 평균 4~5시간 분량이다 보니 뭘 살리고 뺏지가 최대 고민입니다. 사회부에서는 캡이나 데스크가 고쳐주시겠지 은근 슬쩍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여기서서는 제작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편집이 완료될 즈음에는 매주 저희 팀 모두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작 프로그램은 음악이나 그래픽, 각종 편집 효과들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는 음악이나 자막이 없는 '클린' 영상과 '방송용' 영상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때로 전혀 다른 프로그램 같을 때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지금은 그 효과들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매번 어떤 새로움을 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분 반짜리 뉴스 리포트와 거의 비슷하게도, '현장에서 건져온 것'이 프로그램 그 자체일 때가 더 많다. 아무리 오려 붙이고 지지고 볶아도 결국 '원본'이 프로그램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ground'에서만 건질 수 있는 이야기, 그때 그곳에서 풍기던 분위기와 눈빛, 뺨을 스치는 바람결, 미세한 냄새까지도 고스란히 담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쫓아 길을 나서는 사냥꾼들의 심정으로 고작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조은 보도제작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성모 차장, 이상미 작가, 박조은, 유동아PD, 박철원 차장

경인년 새해, 각 국의 주요 계획과 비전

촬영부터 송출까지 HD방송 본격화

이계성 기술국장

방송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매체별, 콘텐츠별 경쟁은 물론이고 통신사 IPTV 방송 시장과 신문사 방송 플랫폼 진출은 우리에게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아날로그 종료를 앞두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YTN은 이러한 방송환경과 회사 상황을 고려해 2009년부터 점진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으로 HD방송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촬영부터 송출까지 방송 전 과정을 HD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본격적인 HD뉴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009년 7월 1일 HD방송 시작

지난해 기술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7월에 시작한 HD방송이다.

8개월의 준비 기간과 24시간 중단 없는 방송을 위해 주조정실을 두 차례나 이동한 공사 진행은 2004년 수송동 구사옥에서 남대문 신사옥으로 시스템 이설을 떠올릴 만큼 어려움이 많은 공사였다. HD환경에 맞는 2부조정실과 2스튜디오, 주조정실이 구축되었으며 SD와 HD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SD 시청자를 위해 주요정보는 기존 4:3비율에 포함시켜 방송하고 있으며 HD로 방송하는 2부조정실의 주요시간대 편성비율이 약 80%를 선화하고 있다.

2010년 Total HD 방송시스템 구축 1부조정실과 신호 분배실 HD전환

상반기에 1부조정실을 HD로 전환하여 2부조정실 집중을 해소하고 원활한 제작 환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NLE기반 HD종합편집실을 신설하여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HD제작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호 분배실은 기존 SD를 유지하면서 HD기능을 증설함으로써 SD 및 HD Pool 중계와 외부 방송 수신에 수월해질 것이다.

뉴스밴 HD중계차와 디지털 M/W시스템 구축

상반기에 뉴스밴 5대 중 2대가 HD로

전환된다. 존 OB VAN(2008년)을 포함해 총 3대가 HD로 운용되고 디지털 M/W시스템이 구축되면 더욱 생생한 중계 현장 화면을 자가망인 M/W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M/W시스템은 중계차 전환일정과 보조를 맞추면서 아날로그 주파수 사용기한인 2012년까지 운용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FM 방송구역 확대

서울 동부지역 난청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송신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송신소 이전에 따라 방송구역이 확대되면 서울 전 지역에서 FM 청취가 가능하다.

2010년 방송 전 과정이 HD시스템으로 구축되며 지국에도 HD카메라와 NLE 편집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Tapeless 기반의 디지털 뉴스룸은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와 뉴스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시스템 디지털 전환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시설구축 뿐만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도 디지털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격화 되는 HD방송시스템은 YTN이 미래 뉴스환경을 주도하는 방송사로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콘텐츠 혁신해야!

김 백 보도국장

YTN이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 사보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YTN 창업당시의 열정과 순수함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YTN 선후배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창업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24시간 뉴스매체의 초석을 놓기 위해 선후배가 머리를 맞대 아이디어를 짜내고, 야단을 맞으면서도 오히려 힘이나던 그때 그 시절로 말입니다. 그래야 시청률도 오르고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아 24시간 뉴스매체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포맷과 이슈 중심의 보도

올해 3월 1일, YTN은 개국 15주년을 맞게 됩니다. 또 남아공 월드컵 뿐 아니라 지방선거와 G20 등 굵직한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보도국은 이처럼 의미 있는 해를 맞아 콘텐츠 개선을 통한 고품질 뉴스 생산에 박차를 가해 한국의 CNN이라는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편성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방송사상 처음으로 3시간 대형 뉴스를 도입한 이후 뉴스 포맷이 다양해지고 뉴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 이슈중심의 보도 역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슈를 선도할 만한 창의적인 콘텐츠가 크게 부족합니다. 특종이나 단독기사, 좋은 기획기사를 찾기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노사분규 이후 움츠러든 기자들이 마음의 문을 아직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보도국 기자들 각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취재현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배들 또한 먼저 해결해야 할 일과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인내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생산

차별화된 콘텐츠 생산은 올 초에 본격 가동될 디지털뉴스룸 이이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워크플로우가 전개될 것입니다. 기자가 기사 쓰고 영상취재 기자나 영상편집기자가 그림을 붙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대신에 영상기자가 취재해온 화면을 아카이브에 인제스트하는 순간 모든 제작진이 곧바로 공유하는 디지털시대의 서막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취재기자가 출입처에서 기사를 쓴 뒤 자신이 직접 가편집을 해 방송하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룸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워크플로우의 정착에 최선을 다해나갈 작정입니다. 이처럼 콘텐츠 개선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올해 예정된 대규모 행사는 빈틈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6월 남아공 월드컵 방송, 정치권 판도 변화의 분수령이 되는 6월 지방선거, 그리고 선진국 진입의 발판인 11월 G20 정상회의는 보도국이 심혈을 기울여 대비할 것입니다. 또 한국전쟁 60주년과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아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뉴스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돼 미디어 경쟁 환경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고 조금도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5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도국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위기를 헤쳐 나가면 또 다른 도약의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START 2010

올해는 새로운 뉴스채널과 종편채널 등장으로 미디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디어사업국은 “변화를 기회로 바꾸자”, 마케팅국은 “저력을 보여주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슬로건을 내세웠다. 기술국은 ‘토털 HD방송시스템 구축’, 보도국은 ‘콘텐츠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YTN의 저력을 보여주자!

정영근 마케팅국장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약 35%나 하락한 매출실적을 기록했던 마케팅국으로는 언제 헤어날 지 모르는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으로 4/4분기에는 전년 대비 약 10%를 초과한 매출을 기록하며 수정목표 달성과 함께 올 한해 흑자경영에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음에 착안해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산다”라는 서브아젠다를 개발, 지자체장 출연을 유도함으로써 지자체의 캠페인 광고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전년대비 초과달성을 이뤄냈다. 또한 광고예산이 부족한 광고주에게서는 현물로 광고비를 결제하도록하는 적극적인 영업을 펼쳐 디지털카메라, 정수기, 골프채 등을 교환광고로 유치했으며 이를 저렴한 가격에 사내판매 함으로써 사원복지에도 기여한 바 있다.

내년에는 지상파 미디어렐이 출현하고 종편과 신규 보도PP의 실체가 드러나는 해로 전반적으로는 마케팅에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은 해이다. 그러나 마케팅국은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YTN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내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신규시장 개척

채널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방송광고시장의 파이는 제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거래처로는 광고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문의약품광고를 비롯해 방송광고 규제 완화로 인해 생성되는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식음료, 화장품 등 YTN에 배타적인 광고품목의 매출증대를 위해 전사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광고의 적극 섭외

케이블 TV 중에서 YTN은 정부나 공공기관 캠페인 광고 집행에 있어 가장 선호되는 채널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캠페인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YTN이 소외된 예가 흔히 발견된다. 시청률의 부침과 관계 없이 보도채널로서의 YTN이 확보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매출은 전체 광고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매출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조직개편

위기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상황에 맞는 영업조직으로 재정비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먼저 발로 뛰는 영업 마인드를 강화해 광고주와의 스킨십(skinship)을 증대시켜 나가겠다. 기획인력을 강화하여 신규광고 개발에 주력하고 일선 영업조직을 보다 단순화 시켜 순발력있게 대처하는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한다.

인센티브 도입과 목표 책임제

그 어느때 보다도 힘든 시기를 맞이해 영업팀에게는 동종업계 평균수준의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지급을 도입하고 목표달성을 독려해 나가겠다. 또한 팀별 매출목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내년 흑자경영을 위해 마케팅국은 매출 목표를 상향시켜 올해 보다 100억 이상의 매출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YTN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마케팅국의 적극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YTN 구성원 모두가 마케팅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다. 물론 보도매체로서의 공정성은 최상의 가치로 지켜나가면서 말이다.

미디어환경 변화를 기회로 바꾸자!

류희림 미디어사업국장

미디어사업국 입장에서 2009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첫째, IPTV의 등장 등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해 YTN의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SO 대상 수신료 인상에 성공하여 전체 수신료 수입 면에서 전년 대비 57%나 증가한 창사 이래 최초의 수신료 100억 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

둘째, 신규 사업 모델의 발굴이다. '청소년 영어토론타와 '임행주 콘서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신규 사업 모델의 발굴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소득이라 할 수 있다.

2010년은 지상파 미디어렐의 출현 및 종합편성채널과 신규 보도PP의 실체가 드러나는 해로, 외부 환경에 있어서 기회보다는 위협 요인이 더 많은 변화의 해이다. 그러나 미디어사업국은 '변화(Change)가 곧 기회(Chance)'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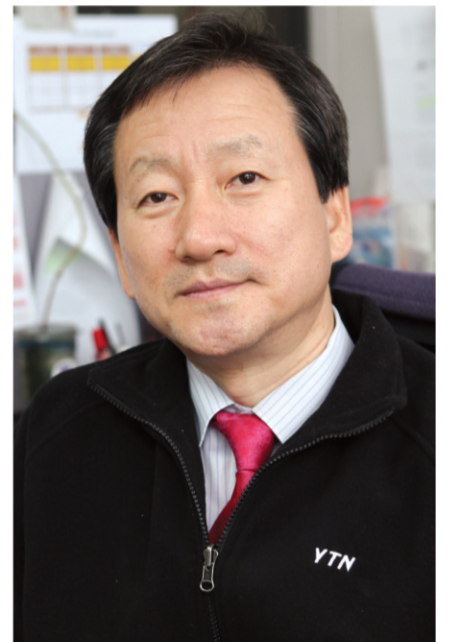
빌 게이츠는 자신은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지만 날마다 새롭게 변화한 것이 자신의 성공요인이라고 말했다. 'Change'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된다. 변화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있는 것이다. 미디어사업국은 'Change'의 g를 c로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경쟁 체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마케팅 시스템 구축

기존 비경쟁 환경 속에서 안정적 관리 위주로 이루어졌던 플랫폼 마케팅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마케팅 시스템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업 마인드 강화와 영업 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경쟁 환경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력 보강을 통한 지역 담당 책임제(Brotherhood)의 강화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마련하겠다.

프로젝트 사업 강화

종편과 신규 보도PP, 지상파 미디어렐의 출현은 광고 시장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나눠먹을 파이를 작게 만드는 강력한 외부 위협 요인이다. YTN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미 정체되기 시작한 광고 시장 이외의 곳에서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가능성을 확인하였던 공연 기획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에서 성장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 개국 15주년, G20 정상회의 등 다양한 이슈를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의 수행으로 이미지 제고 뿐 아니라 YTN의 수익 확대에 일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들을 마련하겠다.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강한 체질로의 개선을 위해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전문 지식 및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충원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

변화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대비 없이 거대한 파도에 맞선다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겠지만, 서핑 보드를 들고 파도에 맞서 파도를 탄다면 구름을 타는 듯한 환상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듯 당당히 변화의 시류에 맞춰 변화를 주도한다면 그것이 YTN의 미래에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커든 촛불

내 인생의 공격수를 꿈꾸며

소위 '아홉수'가 들었던 것만 같은 2009년이 마침내 저물었다. 이제 대망의 2010시대가 열렸다. 유난스럽게 온 집안을 털듯 거하게 치르는 대청소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쓸고 닦고 정리하는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새해맞이 대청소를 해볼 생각이다. 비단 집안 뿐 아니라 내 정신과 온 몸 구석구석 제대로 점검하고 새롭게 열정과 씩씩함으로 무장할 참이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지난 2009년은 참으로 길고도 지루했으며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작은 한인사회에도 거센 폭풍처럼 다가왔던 세계적 경기한파로 나 또한 실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열심히 뛰던 일을 손놓아버리거나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한 해 연말이 겪는 레이오프와 생각지 못한 타인들의 이기심으로 생채기를 여러 번 입은 '어린' 나는 이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고 그리고 동시에 몸을 움크려야 할 때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한창 필드를 뛰고 있어야 하는 공격수가 수비수로 전환되더니 어느새 경기마저 취소되어 팀이 해체된 것만 같은 이 상황은 참으로 내 의지력과 인내심, 그리고 정신건강마저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이 와중에 올 여름 처음 맡게 된 YTN 해외리포터 일은 진정 나에게 어둠 속에서 커든 촛불과도 같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못내 아쉬웠던 점이 시작 당시 '글로벌 코리아' 코너의 콘셉트나 정보가 없어 아이템 선정과 기사방향잡기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생각보다 조용한 지역이라 아이템이 너무 뻥뻥했고 고민 수에 비해 의미 있는 행사도 적었다.

해외리포터로서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위치인지, 담당피디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이 허용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템 승인부터

방송업로드 순간까지 몇 번이고 나의 의지를 시험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 타인의 알 수 없는 견제부터 시작해 매번 카메라 대여에 대한 고민, 다행히 장비를 구하고 촬영지로 향하던 어느 날은 정말 예상치 않게, 밴쿠버 유일한 시민의 발, 대중교통 스카이트레인이 멈춰서 몇 시간을 역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일, 시외 촬영으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갔는데 정작 행사는 코딱지만 했던 일, 반면 행사는 화려하고 좋은데 이날따라 빌린 장비도 내 몸도 말을 안 들어 좋은 컷을 많이 못 담았던 일, 일련의 에피소드마다 혼자 웃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매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은 겪었지만 무탈하게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해외방송팀과 담당피디에게 그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달 해외리포터 연수 참가로 교육이상으로 얻어온 팀장님 이하 해방팀의 따뜻한 배려와 유쾌한 시간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리포터 분들과의 소통은 무척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었다. 앞으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해 어디에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긴 시간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인생에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기 마련이고 원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도 온다. 앞이 보이지 않아 무엇을 해야 할지 나만 뒤흔치는 건 아닌가, 경기는 도대체 언제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경기는 반드시 계속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보다는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경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 역시 조금은 안정된 직장을 구해 지난해 못 다한 열정

으로 새겨진 새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싶다. 지난 한 해 나를 애를 많이 먹었던 나 자신을 위해 연말에는 작은 카메라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재정비하고 좀 더 다채롭고 알찬 리포팅을 꿈꿀 수 있도록 말이다.

아울러 새해에는 YTN 글로벌리안을 많은 한인동포들이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 코너를 알고 나서 이 방송이 얼마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새삼 배울 수 있었다. 동포들의 다양한 모습과 열정어린 이야기는 공통분모인 모국에 대한 끈을 이어주는 동시에 우리 지역 한인들도 저런 노력은 필요하겠다. 저런 이벤트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다 하며 스스로를 자극하고 지역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민을 왔지만 여전히 한인사회의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동포들. 그러나 아직은 타 커뮤니티에 비해 화합을 통한 큰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쉬운데 방송이 이런 힘을 모아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년 이맘때는 우리 모두가 부디 공격수가 되어 즐겁게 땀 흘렸던 경기 이야기에 대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호봉을 꿈꾼다든지 이런 말로 말이다. 모두 파이팅!!

이지현 글로벌리안 밴쿠버 리포터



포토뉴스



▲ 미디어어워드 시상식 (12.21)



▲ 희망의 우물콘서트 수익금 전달 (12.23)



▲ 한글로 맺은 형제 민족 - 짜아짜아족 방문 (12.24)



YTN · 월드비전 희망의 우물콘서트 (12.9) ▶



◀ 시청자위원회 이웃 사랑 성금 전달(12.30)

뉴욕 특파원 새해인사

차이와 다양성의 소중함, 배려와 포용의 가치...



새해가 열려 2010년이 시작됐습니다. “세월은 쏜 살 같다. 해가 바뀔수록 세월은 더 빠르다”는 얘기 맞습니다. 부푼 가슴으로 뉴욕 땅을 밟은 게 엇그제 같은데 한 달쯤 뒤에는 서울로 돌아갑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리운 이들과 그리운 곳을 곧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 같지 않은 미국 내 뉴욕을 만들어 온 것들을 3년 가까이 겪었습니다. 190개가 넘는 나라 출신들로 만들어진 인종 전시장. 이들이 만들어 낸 다양한 문화가 켜켜이 쌓이고 녹아들면서 뉴욕은 진화해 왔습니다. 맨해튼에 세계 금융 중심지 월가, 패션과 미술의 중심지 소호와 첼시, 다자외교 중심지 유엔본부, 세계 명품거리 5번가, 흑인민권 운동 중심지 할렘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과 반목, 대립을 겪었지만 개방성, 다양성, 개성을 존중하고 지키고 차별을 줄이려고 노력한 덕분에 뉴욕은 Melting Pot으로, 세계화 시대의 모델이자 아이콘(icon)으로 세계 또 우리에게 각인돼 있습니다. 이런 뉴욕을 체험했기 때문에 차이와 다양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배려와 포용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면 이런 소중한 체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뉴욕 특파원 생활 나름대로 바꿨습니다. YTN의 첫 뉴욕 특파원이었기 때문에 부임한 지 첫해 반년동안은 얼굴을 알리려고 발품을 제법 팔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로 월가가 무너지고 세계가 경기침체의 터널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과정 보도와 일본 특파원들과 함께 회담장소를 헤매며 찾고 뺨치기를 밥 먹듯 해야 하는 북미 대화와 국제사회의 북한 핵 개발 시도에 대한 유엔 제재를 시시각각 보도하는 것도 혼자서 감당하기에 벅찼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국제부 선후배 동료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줬습니다. 맨해튼 바닥에서 이 찾듯이 밤새 돌아다녔던 신정아씨 취재는 인상은 깊었지만 그와 친한 기자가 소속돼 있던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로 끝나 아쉽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발리와 동티모르 동행취재는 몸이 고됐지만 좀처럼 가기 어려운 곳을 취재해 보람됐습니다. 섭외에 어려움이 따르고 경제뉴스와 미 중시 보도에 발목이 묶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획과 심층보도를 맡겼 하지 못한 것은 미련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월드투데이가 신설돼 그동안 꼭 보도하고 싶었지만 제약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유엔 이슈를 보도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뉴욕의 수준 높고 풍성한 문화 이벤트나 현상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안한 휴일용 리포트로 취재하고 제작해 보도한 것은 저로서는 의미 있는 시도였고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아쉬웠던 것, 부족했던 것은 이제 후임자인 이재윤 특파원이 보도국과 국제부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서도 경험을 살려 언제든 지 돕고 싶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면발치서 보면서 서울에 있는 식구들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저도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크게 멀리 보고 보듬고 화합해 무한 경쟁이 예상되는 방송 보도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기존 국내 시장에서만 찾아서는 승산이 적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화를 선언하고 OECD에 가입한 지도 15년이 됐고 그 첫 세대와 이후 세대가 우리사회 주축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들의 세계무대 진출은 급격히 늘어갈 것입니다. 국내 뉴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다루고 국제 뉴스를 국내 뉴스에 적용하는 능력을 더 키워나가고 국제적인 취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맨 파워를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도전과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새해 YTN에 기대해 봅니다.

이종수 뉴욕특파원

특종상 취재기 - 서울도심 멧돼지 출현

멧돼지가 나타났다!

토요일 오전 7시 퇴근을 앞둔 시간에 사회부 야근자 김지선 씨가 내려왔다. 멧돼지가 나타나 민가를 돌아다닌다는 제보전화카 끊이지 않아 취재를 간다고 했다. 퇴근을 앞둔 귀찮은 시간이지만 취재장비를 챙겼다. 사실 멧돼지를 내 눈앞에서 발견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 영화에서나 볼직한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닥뜨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9월 이른 아침 멧돼지는 취재진을 비웃기라도 하듯 느닷없이 카메라 앞을 스쳐 지나갔다.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인근 파출소 대원들과 119소방대원들과 같이 빌라 뒤편 야산을 헤매고 있었다. 30분 정도 흘렀을까? 멧돼지도 안 보이고 찍기도 힘들 것 같았지만 나도 모르게 괜한 오기가 생겼다. 취재진과 함께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농담 삼아 오디오맨한테 “멧돼지가 나타나면 들고 있는 트라이포드로 찍어버려라”하고 휴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웬걸 우당탕하며 “저기다~~~ 잡아라”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 한 명이 순식간에 뛰어 내려오면서 멧돼지 출현이 시작됐다. 막대한 골목으로 간 멧돼지는 순식간에 경찰과 카메라 쪽으로 200kg이 넘는 육중한 몸으로 달려들었다. 순간 무섭다기보단 멧돼지를 본 반가움에 서터를 눌렀고, 옆에 있던 경찰도 예고 없이 멧돼지 입에 실탄을 정확히 발사했다. 총소리에 놀라 그만 서터를 끊었고 경찰은 흥분된 소리로 총에 맞았다 하며 내리막 골목길을 멧돼지를 따라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멧돼지는 4차선 대로를 건너 반대편 구기동 빌라 쪽으로 도망쳤다. 우리도 1km가 넘는 길을 경찰과 함께 피 흘린 자국을 확인하며 뒤를 쫓았고 영문도 모르는 길 가던 시민은 두려움에 떨었다. 멧돼지가 도망가며 차를 받아 버렸는데 차량 앞범퍼가 거의 반파 됐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아주머니는 너무 황당하고 놀래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울고 있었다. 구기동 빌라 쪽으로 도망친 멧돼지는 피를 흘리며 어슬렁거렸고 경찰과의 대치는 시작했다. 경찰도 사람 인자라 멧돼지가 움직일 때마다 어~~~하며 도망가고, 또다시 안 돼 하며 우왕좌왕하며 소방대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실탄으로 사살하면 끝날 걸 토요일 아침 주택가에서 총격을 가하면 무리가 있는지라 생포를 할 계획이었나 보다. 그러나 멧돼지를 생포한다? 그것도 개나 고양이 잡는 뜰채 달랑 두 개를 들고 말이다. 옷을 일이지만 대치가 길어지자 일보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찍은 카드를 회사로 보냈고 사회부 전화연결로 이어졌다. 그사이 멧돼지가 주택가 담장을 넘어 야산으로 도망쳤다는 얘기를 들려왔다. 완전히 포획한 모습을 찍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회사로 복귀하려는 순간 경찰의 전화가 왔다. 북한산 등반로 쪽 빌라 주차장에서 사살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현장으로 갔다. 총을 여섯 발 맞고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포획이 아닌 사살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과 멧돼지가 돌아다니던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됐다.

나 또한 멧돼지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기 때문에 그림을 찍지 않았나 싶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러 방송사에서 그림 풀을 요청했고 오랜만에 위험을 무릅쓴 취재를 함으로써 또다시 카메라기자의 매력을 느꼈다. 그날 아침 제보를 받은 박소정 기자와 야근자 김지선 기자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지금 생각해보면 꿈에서가 아니라 직접 돼지를 봤으니 로또를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2010년도 작년과 같이 내 인생에 있어서 희망과 스틸 있는 삶이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원종호 차장 영상취재부

1년에 딱 2번 회의합니다

“대전지국을 알려드려유?”

“이 선배 ‘라마단’ 들어가셨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타사 기자들이 날 볼 때마다 묻는 소리다. 여기서 이 선배는 이정우 대전지국장 을 가리킨다. 그리고 ‘라마단’은 이 선배가 겨울 3달 남짓 술을 안 먹는 기간이다. 이 선배의 폭탄주 세례에 별 별 떠는 타사 기자들이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기도 하다. 대전 기자들이여 안심해도 좋다. 올해 이 선배의 ‘라마단’은 이미 12월 4일 시작됐으니. 우스갯소리지만 이 선배는 ‘소폭’을 진짜 좋아하고 돌리는 잔 수는 이 선배가 제작하는 리포트 양 만큼이나 많다. 리포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YTN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선배는 리포트 제작에 엄청난 정열을 뽐어낸다. 지국장으로서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기자들보다. 덕분에 대전지국은 항상 ‘열심히 일하는 지국’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었다.

지국장인 이 선배를 포함해 대전지국은 모두 7명이 움직인다. 최근 앨버트스를 기록하며 골프 좀 친다는 사람들의 시샘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백발의 박동일 선배(카메라). 노래방에 가면 ‘누이’를 꼭 불러야 직성이 풀리고 대전지국의 돈을 움켜잡고 있는 도경희 선배(기술). 최근 살을 무지하게 빼서 몰라볼 정도가 돼버린, 그리고 올 여름 속달말로 ‘캐간지’ 라이방(레이번) 선글라스를 구입한 장영한 선배(카메라). 힘들어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지국의 안전운행 최선봉에서 있는 ‘큰 형님’ 박종권 선배(운전). 사랑스런 공주에 이어 올해 득남에 선공한 ‘럭셔리 스포츠맨’ 정상호 선배(운전). 마지막으로 막내인 나 이문석.^^ 아! 그리고 2개월 짧은 기간 동안 대전 모 모텔에서 생활을 하고 지금은 복귀해 의정부를 지키고 있는 만수도 잠시나마 대전지국을 거쳐 간 인물이다.

‘손이 오그라들게 만드는’ 지국소개를 해보라고 하니 내가 처음 대전지국에 출근한 때, 그러니까 2004년 9월이 떠오른다. 그때는 지금의 탄방동이 아닌 CMB(대전지역 SO) 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을 시기다. 찾아가기가 여간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근무환경도 ‘그닥’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난다. 좋았던 것은 문만 열고 나가면 화장실 앞에서 깽연이 허락됐던 것과 지하 식당 음식이 푸짐했다는 것 정도. 그리고 보면 지금 대전 지국이 있는 SK텔레콤 빌딩은 최첨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궁전’이다. 뭐 계속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눈치보고 간섭받는 건 그대로지만.

지난 5년 동안 제일 기억나는 사건은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 처음 접해본 대형 사고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기름 색깔만큼 깜깜했던 기억이 있다. 이 사건이 워낙 컸다 보니 다른 사건들은 다 자잘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 밖에 지난해 5월 낚시객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령 해수범람 사고, 또 2006년 1월에 잡은 대전 ‘발바리’ 사건 등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 물론 지금은 세종시 수정이 가장 큰 이슈다.

대전지국은 1년에 회의를 딱 2번 한다. 연초에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한 번. 그리고 연말에 1년 동안 수고했다고 한 번. 중간 중간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1년에 두 번으로 끝내고 있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바쁘게 웬만한 사안들은 전화로 해결하면 되니까 굳이 없는 시간 쪼개며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게 지국장의 생각이다. 동감이다. 그렇다고 회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혹 다른 지국들은 오해 없도록.

대전지국 사람들의 유머는 유치찬란하다. 좋게 말해서 ‘언어유희’가 먹히는 곳이라고나 할까? 예를 들어 낮 프로그램인 ‘뉴스 & 이슈’ 방송 타이틀이 나가는 걸 보고 누군가 “오늘은 뉴스 있슈?(있어유)”라고 말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늘 이슈는 없슈!”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논다. 이런 식의 말장난이 여기서는 ‘뽕’ 터진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오래 같이 밥을 먹다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그 유머코드에 몰들어버렸다. 물론 다른 기자들과 술 먹다가가 멋모르고 이런 유머를 내뱉었다가 죽을 뻔한 기억도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유용하게 쓸 것이니 기억해두자. ‘대간하다’라는 말이다. ‘일 따위가 힘이 들다’ 혹은 ‘어렵다’라는 뜻인데 대전이나 충남지역을 오게 될 일이 있으면 많이 듣게 되는

말이다. 정말 많이. ‘너 어제 술 많이 마셨구나. 대간해 보인다’ 라든가 ‘그 많은 짐을 혼자 옮겼어? 참 대간했겠다’ 뭐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하다. 사실 지국소개를 쓰고 있는 지금의 내가 참 대간하기도 하다.

대전은 지리상으로 국토 중간에 있고 실제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면서 범죄자들이 도망가거나 이동할 때 잠깐 쉬어 가려다 많이 잡히는 곳이란단다. 그래서 대전을 두고 ‘범죄자들의 무덤’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대전지국은 그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회사에서 대전을 비롯해 5개 광역시에 순환근무 취재기자 한 명씩 내려 보낸다고 했다. 누가 대전에 오게 될지 모르지만 근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가 되면 분명 말은 1/3쯤 느려져 있고 ‘그래, 안 그래?’ 대신 ‘겨, 안 겨?’를 남발하게 될 것이다. 또 술집에서는 ‘참이술’이나 ‘처음처럼’이 아닌 ‘린 주세요.’를 외쳐 같이 간 사람들과 식당종업원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대전지국 여러분! 내 말이 겨, 안 겨?

이문석 대전지국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상호, 박종권, 도경희 차장, 박동일 차장, 장영한 차장, 이문석, 이정우 지국장